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셀프리더십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중경*, 이중근**, 김기용*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여주대학교 간호학과

e-mail: 20220013@gimcheon.ac.kr

The Effect of Professional Intuition, Self-Leadership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ung-Kyung Kim*, Jung-Geun Lee**, Ki Yomg Kim*

*Dept. of Computer Science, Korea University

**Dept. of Nursing, Yeos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셀프리더십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은 K도와 G도에 각각 1개 간호학과 재학생들로 하였고, 자료 수집은 2022년 09월 05일부터 09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은 평균 2.56점, 셀프리더십 평균은 4.03점, 전공만족 평균은 4.24 4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전문직관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셀프리더십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셀프리더십으로 나타났고, 47.6%의 설명력을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1. 서론

대학생 시기에는 사회 초년생을 경험하는 시기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경험한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전문직 간호사로 활동하기 전 전문직에 대한 이론 및 자질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직관을 형성하는 시기로 이 시기를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1].

간호 대학의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며, 타 학문에 비해 학습량이 높은 편으로 많은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생활에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 하게 된다[2]. 이러한 경험은 전공에 대한 불만족과 함께 중도 탈락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이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나아가 임상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3].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전문직관을 들 수 있는데 전문직관을 확고히 하는 것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목표의식을 갖게 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4]. 최근 국민들의 건강의식이 높아지면서 서 의료계에 보다 전문적인 질적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따

라서 간호에 있어서도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5]. 전문직관은 임상 간호사에게 실무적 영역에서도 중요하지만 간호대학생에게는 전공 교과목을 배우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며, 대학생 시절에 형성된 전문직관이 결국 임상까지 이어진다[6]는 점에서 앞으로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이 간호에 대한 올바른 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간호대학생에 있어 셀프리더십은 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및 전공만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7].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및 전공만족의 관계를 알아보고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을 높이기 위한 기초조사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셀프리더십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Table 1. Differences between Professional Intuition, Self-Leadership and Major Satisfac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0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Professional Intuition		Self-Leadership		Major Satisfaction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36(29.5)	2.56±1.01	-.039 (.969)	4.05±.46	.261 (.794)	4.17±.65	-.834 (.406)
	Female	86(70.5)	2.56±.78		4.03±.50		4.27±.57	
Grade	1-year ^a	13(10.7)	2.75±1.08	.744 (.528)	3.86±.49	4.697 (.004) a<b	3.74±.59	5.655 (.001) a<b
	2-year ^b	14(11.5)	2.31±.53		3.72±.51		4.08±.76	
	3-year ^c	46(37.7)	2.51±.84		4.01±.42		4.22±.45	
	4-year ^d	49(40.2)	2.63±.88		4.20±.49		4.44±.59	
Religion	Christian	34(27.9)	2.52±.90	.744 (.234)	4.07±.48	.744 (.799)	4.26±.52	.744 (.360)
	Catholic	10(8.2)	3.09±1.12		3.97±.48		4.43±.57	
	Buddhism	5(4.1)	2.36±1.22		4.20±.16		4.58±.26	
	Other	73(59.8)	2.52±.85		4.01±.51		4.19±.64	
Major Satisfaction	Very Bad	1(0.8)	1.83±.00	3.246 (.015) a<b	3.00±.00	8.818 (.000) a<b	3.05±.00	22.139 (.000) a<b
	Bad	3(2.5)	3.14±.37		3.33±.29		3.09±.89	
	Nor bad	27(22.1)	2.97±.80		3.76±.49		3.74±.64	
	Good	66(54.1)	2.36±.74		4.04±.43		4.29±.41	
	Very Good	25(15.6)	2.63±1.05		4.38±.38		4.80±.23	
College satisfaction	Bad	3(2.5)	2.35±.46	.531 (.662)	3.76±.72	4.713 (.004) a,b<c	3.33±.93	8.174 (.000) a<b,c
	Nor bad	34(27.9)	2.71±.76		3.87±.50		4.02±.57	
	Good	66(54.1)	2.50±.87		4.04±.46		4.28±.47	
	Very Good	19(15.6)	2.56±1.02		4.36±.40		4.65±.71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2년 09월 05일에서 09월 30일까지 K도에 위치한 1개 대학교와 G도와 위치한 1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모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 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대상자는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로 서면동의를 실시하였다. 총 122명의 응답자가 설문을 작성하였고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전문직관

전문직관은 Yeun[8]등이 개발한 도구를 Han[9]등이 간호대학생의 실정에 맞게 18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성, 사회적 인식, 간호실무 역할, 독자성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였고 Han[9]등의 연구에서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였다.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10]가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Kim[1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등 6개의 하위요인으로 각각 3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4이다.

2.3.3 전공만족

전공만족도는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 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이동재 (2004)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공하고 있는 전공학과 학문에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 '교과내용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 간의관계만족' 3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동재[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이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및 전공만족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고, 사후검정은 Scheffétest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전공만족, 셀프리더십 및 전공만족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였다.

3)대상자의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3. 결론

3.1 대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및 전공만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관은 전공만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분석결과 전공만족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보다 만족, 매우 만족인 경우 전문직관이 높았다(F=3.246, p=.000).

셀프리더십은 학년, 전공만족, 학교만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분석결과 학년은 1,2학년보다 3,4학년이 전공만족이 높았고(F=4.697, p=.004), 학교생활은 불만족 보다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인 경우 셀프리더십이 높았다(F=4.713, p=.004),

전공만족은 학년, 지원동기, 전공만족 및 학교만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학년은 1,2학년보다 3,4학년이 전공만족이 높았고(F=5.655, p=.001), 전공만족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보다 만족, 매우 만족인 경우 전공만족이 높았다(F=22.139, p=.000). 학교생활은 불만족 보다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인 경우 전공만족이 높았다(F=8.174, p=.000)(Table 1).

3.2 대상자의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전공만족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평균은 2.56±.85이며, 셀프리더십 평균은 4.03±.49이고, 전공만족도 평균은 4.24±.60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Intuition, Self-Leadership and Major Satisfaction

	Mean±SD	Range
Professional Intuition	2.56±.85	1~5
Self-Leadership	4.03±.49	1~5
Major Satisfaction	4.24±.60	1~5

3.3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전공만족의 상관관계

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r=-.154, p=.091)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전문직관과 전공만족은(r=-.207, p=.022)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셀프리더십과는전공만족(r=.689, p=.000)은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Intuition, Self-Leadership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Intuition	Self-Leadership	Major Satisfaction
Professional Intuition	1		
Self-Leadership	-.154 (p=.091)	1	
Major Satisfaction	-.207 (p=.022)	.689 (p=.000)	1

3.4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에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공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난 전문직관, 셀프리더십을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867로 2에 가까워 잔차분석결과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 (tolerance, TOL)는 0.976으로 0.1보다 높았고,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VIF)은 1.024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에 미치는 요인은 전문직관(β=-.072, p=.124) 유의하지 않았으며, 셀프리더십(β=.819, p=.000)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공만족에 대한 설명력은 47.6%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Major Satisfaction

Spec.	B	β	t	p
Constant	1.123		3.065	.003
Professional Intuition	-.072	-.103	-1.551	.124
Self-Leadership	.819	.637	10.108	.000
Durbin-Watson	1.867			
F(p)	56.012(.000)			
R ²	.485			
Adjusted R ²	.476			

참고문헌

[1] E. H. Choi, Y. K. Kwag, "Application of a Simulation in Core Basic Nursing Skills Training for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5, No.6, pp.133-141, 2015.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5.5.6.013>

[2]J. K. Kim, S. J. Lee, W. J. Kim.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3, pp.111-121, 2022.
DOI: 10.22251/jlcci.2022.22.3.111
- [3] J. S. Kang,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on the intention to have a social welfare job,"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0, pp.393-400,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393>
- [4] H. S. Kang, K. J. Cho, N. H. Choi, W. O. Kim, "Reconstruc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2, No.4, pp.470-481, 2002.
- [5] D. S. Im, A study on nursing profess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2005.
- [6] E. H. Hwang, S. J. Shne.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1, No.1, pp.97-108, 2017.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7.31.1.97>
- [7] H. J. Park.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27-236. Vol.21, No.2, pp.227-236,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227>
- [8] E. J. Yeun, Y. M. Kwon, O. H. Ahn(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 pp.1091-1100, 2005.
- [9] S. S. Han, M. H. Kim, E. 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4, No.1, pp.73-79, 2008.
- [10] C. C. Manz, "Improving performance through self leadership", *National productivity Review*, Vol.2, No.3, pp.288-297, 1983.
DOI: <https://doi.org/10.1002/npr.4040020308>
- [11] H. S. Kim,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Teachers*", PhD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2002.
- [12]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4.